

🤔 [집담회 기록] 페미가 페미에게, 이번
선거... 어떻게 해?

[집담회 기록] 페미가 페미에게, 이번 선거... 어떻게 해?!

일시 2025년 5월 28일, 19:00 - 21:00

장소 한국여성재단

사회

오매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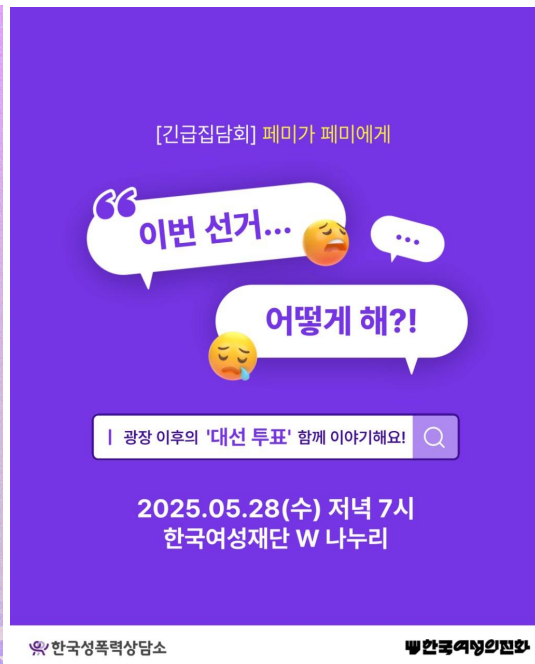
김정희원 ▶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란희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리에 ▶ 페미니스트연구웹진 Fwd

- 본 속기록은 PC 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이 많기 때문이지요.



집담회의 홍보물

● 특별 사전마당

오매: “긴급집담회, 페미가 페미에게 이번 선거... 어떻게 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21대 대선은 정말 역사상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 최악의 선거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가지로 궁리했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분노스러운 사태에 이르렀다가, 이대로 사전투표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긴급하게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요. 50여 명의 시민 분들이 신청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신 패널들 소개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매 활동가입니다.

란희 : 저는 한국여성의전화 활동하고 있는 송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진경: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하는 배진경이라고 합니다. 솔키라고 불러주세요.

이리예 : 안녕하세요. 이 건물 3층에 있는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리예 활동가입니다.

김정희원: 저는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의 김정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매: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 와중에 어제 ‘이준석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준석 사태’라고도 불러봤는데요. 그렇게까지 과대평가해주지 말자는 논쟁이 저희 사무실에서 벌어졌답니다. 아무튼, 긴급하게 이준석 사건에 대한 너무나 많은 액션을 하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였는데요. 어제 밤 12시에 성명을 올려서 모든 이준석 지지자들의 반응을 댓글창에서 한눈에 보게 해 주신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어제 왜 그 시간에 사무실에 계셨던 거죠?

란희: 사무실에 있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성평등 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공동행동에서 단체별로 장소를 지정해서 동네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은 은평구에 있는데요, 그래서 은평구 주민을 한 번 만나볼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외롭지 않은 사회’를 이야기하고, 무엇을 해내라 요구해주시고, 좋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으로 만두 열 판 정도 먹었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갔거든요. 그러다 저희 단체의 SNS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같이 이준석의 텍스트와 영상을 발견했죠. 너무 깜짝 놀라서! 와, 진짜. 욕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입장문을 쓰자고 했어요. 하지만 도대체 어떤 톤으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입장을 잡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은 욕을 쪽 쓴 다음에, 이것이 공개되어도 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순화도 많이 시켰어요. 이렇게 저희가 밤에 입장문을 쓰게 된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오매: 네, 밤 12시에 성명서를 올린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가 여러 명이었던 것에 대해서 여성노동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배진경: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저희는 퇴근 시간이 지나면 집에 갑니다. 그래서 토론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대선 토론회를 이를 악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민주노총에서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연대 발언을 나갔는데요. 분노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선 국면은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철저하게

삭제되고 배제되고 외면당한 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대선 후보들이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고, 공론장에서 성평등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렇게까지 내뱉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수준이 너무 저열하게 떨어져버린 거예요.

오매 : 김정희원님과 이리예님은 어제의 대선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보셨나요?

이리예: 저는 오늘 집담회 패널로 나간다는 생각에 어제 엄청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이야기를 하려면 대선 토론회도 좀 봐야지 했다가... 그 광경을 실시간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토론회를 보고 나서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라는 책이 생각났어요. 이준석 사건이 아니라면 권영국식, 이재명식의 성평등에 대해 논할 수 있었을텐데요. 왜 도돌이표처럼 이준석로 자꾸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쳤죠.

김정희원: 저도 하필 그걸 실시간으로 봤어요. 그 바람에 그 발언이 블랙홀처럼 저의 일상 모든 것을 빨아들여버렸죠. 분노와 여러가지 감정에 휘말린 채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이 왜 그런 말을 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글로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극우의 혐오와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왔는데, 대한민국 극우의 혐오와 폭력의 핵심은 여성혐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매: 어제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저녁 11시 반에 발빠르게 입장문을 쓰셨는데요. 오늘 오후 12시에 고발장을 접수하셨거든요? 그 외에도 저녁, 밤, 아침에 많은 단체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명이 쏟아지는 것은 근래에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이준석이 윤석열이다’ 라는 것에 대해 모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그동안 쌓아왔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4시 반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관련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12월 3일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자고 모든 여성단체들이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은 이준석 막자는 마음으로 다들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집담회 자리에 ‘이준석 사퇴’라는 손피켓을 만들어두었어요. 이 손피켓 들고 사진 찍고, sns에도 많이 올려봅시다.



(사진: “이번 선거… 어떻게 해?!” 화면 앞에 패널 네 명과 사회자가 앉아 있고, 그를 바라보는 청중들이 있다.)

● 여는 말

오매 : 우리 사전신청 받을 때 몇 가지 재미있는 앙케이트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선 광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는 시간을 살펴봅시다. 오늘은 5월 28일, 사전투표 전날인데요. 오늘 오신 분들의 감정이 어떠신지, 다섯 자 토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원: ‘양가적감정’. 왜냐하면, 사실 우리 광장 너무 멋있었잖아요. 그 때 저도 우연히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했었는데요. 주변화된 몸들이 가시화되고, 주변화된 목소리들이 자신의 힘으로 등장하는 굉장히 의미있는 공론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 광장의 목소리들이 계속 삭제되고 있죠. 두 자리수 득표율인 개혁신당의 경우 광장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준석이 기여한 거라고는 2030 남성들은 다 군대에 가 있다고 휘방 놓은 것밖에 없어요. 계속 여성의 목소리, 퀴어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양가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리예: 사전 제공 자료에는 ‘5자 토크’라고 적혀있어서, 저는 ‘아, 다섯 명에서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웃음) 다섯 자로 말하라는 말인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네요. 저는… ‘경주 전 떨림’이라고 말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운동을 탄탄히 해 놓고, 광장의 민의를 우리가 운동으로서 끌고나가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떨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배진경: ‘이건 아닌데’. 처음에 계엄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의 분노가 확 올라오던 12월,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아, 사람들이 이제 저들의 실체를 알았나보다’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1월이 되면서 슬슬 국힘 지지율이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은 김문수 지지율이 38%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요. 광장을 가득 채운 빛을 만들 사람들이 누구였는데. 이 대선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삭제되고 배제되고 외면될 수 있는가 하는 분노가 계속 차오르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우리의 초심인가? 무엇이 이 국면을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는가. 어떤 세력에 의해 우리가 자꾸 뒤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란희: 저는 ‘기가막힌다’. 12월달에는 ‘와~ 기가 막힌다!’ 였다면. 12월 7일과 14일과 여의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다같이 덩실덩실했잖아요. ‘다시 만난 세계’가 시작과 끝에 나왔을 때, 정말 ‘우리가 다른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가 봐!’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배진경 선생님과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요. 정말 바짓가랑이 꼭 잡고 새로운 세계로 가지 못하게 너희가 막는구나. 그래서 어제 사태를 보면서 ‘기가! 막힌다!’라는 심정입니다.

오매: 참여자 중에서도 5자 토크 하실 분 있으세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힌 거 뽑았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평범한 감정도 괜찮습니다 (웃음)

플로어1: ‘완전빡쳤다.’

플로어2: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플로어3: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앞으로 한 발 가면 다시 뒤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플로어4: ‘어쩌다가 왜’

오매: 다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참여자 양케이트를 보겠습니다. ‘나 찍을 후보 있다’고 한 분들이 54%였어요. 나머지 46%는 아직 완전 정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 진보와 보수의 교차로에서

오매: 이제 오늘 토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뒤로 돌아갔는지, 왜 이렇지? 양가감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보수와 진보가 다 리셋되었다. 내가 지지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큰 이름이 이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내린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진보라는 이름 너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이 보수화되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보수와 진보의 교차로에서 페미들은 어떤 좌표와 키워드를 부여잡고 있을까? 저는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누구부터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나 이런 키워드 있는데, 하는 분 있을까요?

김정희원: 저는 이번 대선도 그렇고, 사실 오랫동안 고민해 온 주제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의 극우화와 여성을 향한 차별과 폭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보가 삭제되고 비열한 기회주의자만 남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여성,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선명한 입장은 취하지 않고 모호하게 있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이러한 기득권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소수자와 여성을 향한 폭력을 방조하고 악화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반폭력’으로 잡고 있어요. 중국인을 향한 폭력과 쿼어, 장애인, 여성을 향한 폭력에 대해 반폭력의 언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날들입니다.

오매: 김정희원님은 5번 권영국 후보 지지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미양국의 2개국 셀러브리티시거든요. 국경을 넘나드는 셀럽으로서, 반폭력이라는 목표와 진보 정당 후보의 지지가 어떻게 만났나요? 혹은 키워드와 후보 지지가 만나지는 않지만, 진보 정당이 확보되어야 반폭력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김정희원: 저는 당연히 만난다고 생각해요.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도 온몸으로 스스로 폭력에 대해서도 저항해왔고, 그동안 소수자들에 향하던 폭력에도 대항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영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여기 선거운동을 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요. 특히 제가 감동받은 것은 이거예요. 보통은 대중을 고려한다며 주류화 전략을 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고, 언어를 순화시키지 않았고, 불러야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다 수용했어요. 공약도 수정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반폭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의 뚜렷하게 등장하는 문제를 뿌리부터 바꾸려면,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영국 지지 교수연구자 선언에 거의 700명 가까이 동참 한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매: 폭력에 대항하는 그 역사가 권 후보의 몸에 있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성평등을 말하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들이란 뭘까? 누굴까? 뭘 고민하고 있을까? 를 항상 걱정하고, 잠도 못자고 퇴근도 못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광장에 나왔던 여성들은 너무나 따뜻하고 연대하고 뽐뽐했는데,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서부터 이들이 어디를 향할까 굉장히 고민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란희님은 보수와 진보의 교차로에서 어떤 키워드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란희: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요. 여성의 이토록 다양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은 단일하지 않고 정치색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여성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이야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집만 해도 우리 엄마의 당은 ‘그남자반대당’이에요. ‘그남자’, 그러니까 남편이 찍는 것을 무조건 안 찍는 거죠. 저는 그 남자 반대당 당수라고 놀리기도 하는데요. (웃음)

저희 단체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페미니스트로서 허용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오랜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한 경험이 있지요. 그때도 놀라웠죠. ‘그런 말을 하는 것도 페미니즘이야?’ 하는 논란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여성의 모습이 점점 더 다양하게 폭발하는 것도 페미니즘 운동을 잘 해서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소위 외계인 모습을 하고 다니는 민주당 지지 여성들, ‘내조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내건 광장의 여성들… 저는 처음 ‘어디의 드라마 팬들이 왔나? 언어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시도인가?’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웃음)

제가 요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생각하는 문장이 있어요.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입니다. 저는 천천히라도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속도로 살기가 어려워요. 이준석 사건 같은 것들도 튀어나오고요. 이게 속도가 안 맞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의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리딩할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가 선출직은 아니어도, 힘 있는 유권자로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당에서 활동하는 여성들도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단체가 아닌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소속감 같은 것일까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환대받고, 내가 뭔가 하면, 누가 당선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치에 재미를 느끼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활동을 더 편안하고 매력적이고 효능감 있게 만드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싶어요.

오매: 소속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속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에 너무 많은 여성이 가셔서 우리도 예배를 해야하나했는데 (웃음) 우야든동 정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인가? 우리는 울동할 것도 없고. 한여전은 그래도 울동과 노래를 계속 만드는 훌륭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리예님과 배진경님은 어떤 키워드를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리예님은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리예: 왜 여성들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당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당에 소속되고 활동하는 것은 팬덤 활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이돌 시장이라는 곳이 정치의 문법을 따라가는 면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들을 알리고, 투표해서 이들을 1위로 만드는, 이들을 내조하는 일. 이 사랑의 노동을 하는,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들이 비슷한 곳에서 더욱 커다란 효능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내가 소위 빠순이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일도 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란희: 그런데… 정치인들은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이리예: 빠심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는데. 매력이라는 것은 영향력에서 와요.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매력은 어떻게든 발견이 됩니다. 그의 모든 것이 매력이 됩니다. 우리 빠순이들이 언제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유겠지요.

팬덤화의 문제점은 팬덤이 어떻게 굴러가는가와 닿아 있어요. 팬덤에서는 가짜 팬과 진짜 팬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타자를 배제하는 논리가 계속해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타자를 배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보수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소신’인데요. 지금은 소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1번과 5번 사이를 고민하는 여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5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 정책이라는 것이 기약없는 일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정상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날들을 우리가 몇 년 겪었는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 동수제, 여성 30% 50%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평등 공약 거의 안내고, 선거 시기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만 듣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소신’이 아닌가. 나 더 이상 여기에 투표하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 같아요.

오매: 10년 전에 우리 급진적인 거 주장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은 급진이고 나발이고, 이런 말씀. 저 굉장히 굶었어요. 옛날에 여성 동수제를 주장했었어요. 다들 아시지요? 배진경 선생님에게는 ‘정기권이 성평등에 침묵하는 이 기이한 판국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라는 매우 복잡한 어느 참여자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배진경: 과거에 우리가 더 급진적인 주장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주장이었을 뿐이죠. 사실 우리 주장은 바뀌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세상이 바뀐 것이죠. 선거 때마다 희한하게 ‘너희는 좀 나중에 해 줄게’라는 말이 반복되었어요. 우리는 2등 시민도 아니고 3등, 4등 시민인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권력을 가지지 못해서, 권력의 핵심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저들의 프레임을 뒤집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성계 선배님들이 정당에 가서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셨느냐 하면, 솔직히 그거 못하셨다고 생각해요. 정당 내의 권력의 핵심이란 너무나 견고하고 높은 성인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써야 했던 거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당론에 동의해야 했고, 앞으로 가기 너무 힘든 일인 것이죠. 근데 지금은 또 어때냐, 백래시가 일어나는 시점에 윤석열이 나타나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내질렀잖아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은 이전에는 공론장에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주장이었어요. 정치적 피씨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말해야 대선 후보 대열에 오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윤석열의 그 발언 이후로 이준석 같은 사람이 힘을 얻어서 깽판을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하는데, 어떻게 그 힘을 갖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대선 판에서 페미니즘 함구령이 내려진 이유가 ‘젠더갈등’ 때문이라면요. 이것은 명백하게 페미니즘 백래시라고 생각해요. 반페미니즘이 페미니즘과 동등한 주장인양 설명되는 그

프레임에 정치권이 포획되어 버린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성평등의 기준을 이제는 끌어올려야 하는 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기억해야 돼요. 뭐든 바닥을 치면 올라가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뒤늦게 ‘성평등가족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딱 그 수준까지 올라온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올라오는 힘을 추동하는 것은 이 한 줌도 안되는 페미니스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페미니스트라는 거. 우리의 좌표, 북극성은 페미니즘이고, 그건 언제나 있었잖아요.

(좌중 감동)

오매: 우리도 페미니즘이라는 북극성도 있다는 말씀. 팬클럽 이름을 북극성으로 할까요? (웃음) 오늘 이재명 후보가 성평등가족부라는 공약을 냈어요. 이게 이 타이밍에 이제야 나온다고? 허탈하고도, 기가 막히고 분노도 하였어요. 일종의 기다리던 소식이었는데요, 이름이 성평등가족부. 여러분들 가족 다 성평등하시죠? (웃음) 네... 공약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 공약이 없다

오매: 오늘 공약집이 나왔는데 여성 공약이 좀 있었나요?

이리예: 네, 놀랍게도 있었어요.

오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역대 최악의 여성 공약이 없는 대선이라는 기록을 안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전 공약이랑 비교해서 이런 단어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그런 비교가 중요한데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어제까지만 해도 5번 후보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사전 신청에서 맘에 드는 공약 있나요? 하고 물어봤는데요, 아예 없다 0점 12%, 1점 12%, 2점 22%, 3점 24%,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다가 4점 29%였어요. 이게 모든 후보들 다 통틀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쉼터입소여성에 대한 사회보장, 여성가족부 성평등 추진체계.. 이런 질문들 주셨어요. 이런 공약 원하는데 하나도 없었다, 혹은 공약에 대한 아무말 토크 궁금합니다.

이리예: 오늘 민주당 공약들이 추가로 나와서 좀 세분화가 되었던라고요. 민주당 공약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보장, 여성의 성 재생산권과 건강증진 얘기도 있고요. 며칠 전에 나왔던 공약들은 성범죄와 인구계획 두 가지 영역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즐거움, 우리의 몸을 해방할 수 있는 길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 영역, 문화의 영역처럼 우리의 힘,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불만이 있었습니다.

오매 : 내 몸이 즐거움을 느껴야 하는데 체감되는 것이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있어야 하는 공약이 왜 없지? 이런 공약이 혹시 있으신가요?

배진경: 저는 너무 바빠서 하루종일 사무실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공약은 못 봤는데요. 선거, 총선, 대선 등 선거가 있으면 여성 공약에 대해 비교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이번에는 여성 공약이 없어서 못 했어요. 겨우 있다고 한다면 ‘공시제’. 지난 번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겨우겨우 공약으로 내놓았는데요. 윤석열이 되면서 성별근로공시제를 하겠다고 말만 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은 디테일이 중요해요. 공시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공시제에는 구체적인 게 없어요. 공약에 제목만 있는 상황이고, 이름마저도 후퇴를 한 거죠. 민주당은 고용평등임금공시제라고 되어 있고, 권영국 후보는 성별임금공시제라는 이름으로 하셨더라고요. 그 이름에마저 성평등이 삭제되고 후퇴되었구나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 대선에서는 모두 성평등임금공시제였고, 윤석열만 성별근로공시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 건질 수 있는게 거의 없어요. 권영국 후보가 그래도 몇 가지 내용을 넣어 놓기는 했는데, 제가 권영국 후보에게 실망했던 부분이 왜 10대 공약에 성평등 공약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였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주요 카테고리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솔직히 제가 2번 당과 이준석 공약은 안 봤어요. 하나는 내란당이고 다른 하나는 여가부 해체를 주장하는데 그런 당의 공약은 볼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대응 준비를 하면서 되게 허전했어요.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것인가? 싫어요. 물론 이 대선이 급박하게 치러진 것이지만, 10대 공약을 통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말이에요. 성평등이라는 키워드가 없는 것을 보고 현타가 세계 왔어요.

오매: 성평등임금공시제였다가 윤석열 시기 후퇴했던 것이 성별근로공시제였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배진경: 저희가 주장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는 뭐냐면요.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이 회사의 임금 격차가 왜 이렇게 나는지 알려면, 지원자의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를 알아야 채용성차별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육아휴직자의 성비, 또 성별에 따라 승진자들이 평균 몇 년이 지나야 승진하는가, 퇴직자들은 몇 살에 보통 퇴직하는가, 그리고 임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 내용만 가지고도 이 정책 이름을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적극적고용개선조치처럼, 내용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이름만 있는 정책일 수 있어요. 굉장히 잘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매: 성평등임금공시제는 고용과 조건에 대한 구체성을 띤 잘 설계된 정책이어야 한다, 라고 정리해주셨습니다. 저는 성평등 공약 자체가 토템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성평등임금공시제’ 들어갔나? ‘강간죄개정’ 빠졌구나 이렇게. 정책의 맥락과 취지가 사라지고, 이 말 하나를 썼냐 아니냐만 가지고 욕을 덜 먹냐 더 먹냐가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제폭력입니다.

오랫동안 친밀한관계 내 여성폭력 다뤄오신 란희 님은 후보들이 교제폭력 공약을 냈다는 얘기를 보고 기뻐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란희: 전혀 안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조차 하지 않아요. 일정 정도의 여성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대로 둡니다. 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 더 탐구하고 연결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폭력을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정폭력, 교제폭력 여러 단어로 얘기하지만, 이것의 핵심은 여성을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폭력의 핵심을 꿰뚫으며 접근하려면 성평등 관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강간죄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런 걸 다 빼고 ‘아, 사람들이 데이트폭력 관심이 많던데’ 하면서 아무 노력을 안 들이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이렇게 딱 쓴거예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주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직접 저 보호명령 해주세요 했을 때 판사가 어, 필요하네요 하면 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되게 선도적으로 해 주는 것처럼 정책 공약을 한 것은 정말 기만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책 거버넌스가 파괴된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장 목소리를 정치인들이 수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치인들이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잖아요. 그냥 앉아서 인터넷을 보고 요새 이런 얘기가 도네? 하면 이거 뭐야?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 같아요. 정책 설계가 완전히 비뚤어지는 거죠. 정책은 잘 설계되더라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애초에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이런 게 현장을 얼마나 망가뜨리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책 토론회도 원래 많이 하는데, 여성정책토론회 비슷한 것도 딱 하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정책도 당연히 없었고. 5번 후보 외에 나머지 후보들은 다 없고. 강간죄 개정 없죠. 임신중단 건강보험, 차별금지법, 그냥 없어요. 그냥 모든 후보들이 다 비슷하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죠.

오매: 정당이 바텀 업으로 정책을 들어야 하는데, 왜 저희 시민단체를 안 부를까요? 우리가 무서운가봐. (웃음) 지난 주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인구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물어보고 가자, 여성가족부 강화나 확대개편은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인구부를 하는 것인지 의혹과 궁금증과 들리는 얘기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인구부 할 계획이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민주당 의원이 “인구부를 여성들이 싫어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싫어할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인구부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만드는 부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라고도 역질문했어요. (좌중 탄식) 낙태죄 처벌의 역사와 함께 여성들을 어떻게 인구 생산과 통제의 수단을 삼았는지 모두 알잖아요. 그래서 인구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징발되는 것 같고, 내 생리 주기를 누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출산 지도가 만들어지는 상처의 역사가 한국 여성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역사라는 것을 정말로 모르는 건가? “아 그래요?”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제 두 분의 얘기 궁금합니다.

김정희원: 공약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민주당이 여성공약 발표했잖아요. Surprise~! 대표적으로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 여성들의 참여를 30%까지 늘리겠다는 것도 말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불쾌하고, 너무나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성들과 정책간담회를 할 때에도 우리 여성공약 미진한 거 인정하지만, 선거 시기의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고 했었고, 수많은 질의에도 진정성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의 여성혐오 발언이 등장하며 전국의 여성들의 분노가 최대치에 이른 지금 여성들의 표를 한 번에 가져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여성들의 폭력에 분노하는 이 순간에도, 득표의 유불리에 따라 여성을 도구화하겠다는 작태에 불과합니다. 공약이 등장하는 것 좋은일이지만 진정성 없고 실현가능성에 대해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너무 곤란하고 속상한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지만, 계속 말꼬리를 붙인 거 아시지요? ‘일부 남성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여성정책은 세심하게 세워야 한다.’ 이걸, 결국 성평등이 무엇인지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선거 운동의 시작부터 성평등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있는데 한순간에 관심을 가져가나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 추진 체계 작동하기 위해 어떤 압력을 가해야하는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성평등가족부 만들면 뭐해? 림보 상태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여성가족부 있지만 의미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만들 것이냐가 저의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번째는, 어제 이준석 발언을 보면서요. 이준석의 발언을 명백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제재도 못한다는게 너무 열받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비방죄? 마땅히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성혐오를 여성혐오로 부르지 못하나요?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공약한 유일한 후보가 권영국 아십니까? 물론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해서 차별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이 무엇인가 명시할 수 있는 공식적 기제죠. 그 때문에 제 마음에 드는 공약은 차별금지법입니다.

배진경: 여성노동연대회의라고요, 저희와 여성노조, 민우회, 여연, 양대 노총이 만든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 연대 단위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정책 협약을 하자고 제안서를 넣었어요. 그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평등한 일터를 만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민주당 노동본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차별금지법을 빼고 정책본부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안 한다.”고 제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민주노동당과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당이 소화가 안 되나봐요.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나봐요. 근데 여러분,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프레임에 말리고 말리고 말린거예요.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거죠. 왜?

우리는 보수니까. 저는 민주당은 늘 보수였다고 생각해요. 국힘은 늘 수구였죠. 이제 새로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극우라는 이름이요. 각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매: 차별금지법을 이준석 사후 제재와 연결지어 이야기해주셨어요. 차별에 대한 한국사회 정의도 없고, 그래서 공공기관 레퍼런스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현실에선 차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곤란하다. ‘이준석 사건’에 대한 성명서 다 모아봐도 여성혐오라는 말이 수백번 등장합니다. 차별과 혐오라는 말의 정의와 대항의 도구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작 정치는 이 법을 공약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대선에서도 ‘지역별 임금 차등제’ 등 공약부터 심각한 차별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 차별금지법만 쏙 빼고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짙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플로어 : 네~

● 페미니스트 정치 액션



(사진: 보라색 페미니스트 정치 액션 화면 앞에 패널들이 앉아 있다. 고민하는 패널들)

오매: 그래서 항상 세 번째 주제는, 너무 상투적인가요? ‘그럼 우린 뭘 해?’ 입니다. (웃음) 사실 우리는 늘 뭘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수고하고 있다 우리. 오늘의 ‘우리 뭘 하지?’는 상투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수와 진보도 다시 세팅되고 우리가 바닥부터 튀어오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대선이 끝나면 더 폐허가 될 수도 있고요. 이준석 지지율이 몇 프로가 될지도 확인하겠지요? 우리는 그 퍼센트를 어떻게 분석하게 될까요? 거기서 뭐든지 다

생각해볼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운동과 여성 대중들, 사회운동과 시민들의 거리는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직업과 상관없이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인데요. ‘나는 지속가능한가?’ 하는 고민도 듭니다. 우선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여러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기가 막힌 사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초 리더십이 계속될 것 같은데, 거시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마음챙김이나 소소한 부분에 관해서 좀 얘기해달라’. 앞으로 어떤 페미니즘 운동, 여성운동을 해야할까요? 혹은 ‘나’ 그리고 ‘남’이 했으면 좋겠는 일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너르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원: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거시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진심으로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자해서 포괄적 성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리큘럼도 전면 재개발해야 해요. 오늘 대선후보 여론조사 나온 거 보셨어요? 보통 1,000명 조사를 하는데 오늘 나온 조사는 5,000명 조사예요. 근데 20대 남성의 이준석 지지율이 40% 대예요. 그리고 이재명과 김문수 지지율이 비슷해요. 이재명 지지율은 30%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약 70%의 20대 남성은 보수 지지성향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0대 남성의 보수화가 실체가 아니라고 디펜스하기 바쁘는데, 사실 인정해야 해요. 30대 남성들도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준석이 티비에 나와서 ‘여러분의 자녀도 이준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플로어 비명)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악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면적으로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압력을 넣어야 해요. 안 그러면 여기 아까 질문 주신 분이 언급한 ‘마초 리더십’ 더 악화될 거예요. 침대 사이에 ‘계집신조’라는 것이 도는 거 아시죠? 전세계에서 디페이크 성폭력이 가장 확산된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거시적인 문제에서는 교육을 정말 고민해야한다는 것을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극우세력에 대해서 더 단호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극우도 우리 사회의 일부라고 하는 논의도 있는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그리는 유토피아에서 모두와 손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나랑 손을 잡아서 안 돼요. 폭력이라고 말 할 대상은 단호하게 폭력이라고 말 하고, 무시할 사람은 무시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매 : 교육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반성이 되어서요. 제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데, 이전에는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조직 예를 들면 공공기관, 대학과 같은 조직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징계하는 노하우를 쌓아왔고,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수용하는 경험들을 해왔거든요. 조직 중 하나가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이라는 회복적 방식인데 근데 지금은 가해자교육 기관이 너무 없어요. 제가 활동하는 곳은 그런 자체적인 해결과정 가운데 가해자 성교육이 제안되면 8~12회기 정도 진행했어요. 가해자를 만나서 교육하는 일이 많았죠.

그런데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여성들 조직하고 연대하고 하느라 바빠서 못 했는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해자 교육을 다시 해야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리예: 마음이 아픕니다. 성폭력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에 너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 남성들이 그런 혐오적인 사상을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인터넷이죠. 온라인 공론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으니까요. 아무 편을 정하지 않은 사람이 이기는 곳이 인터넷이고 그 안에 이준석이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 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라기보다는요, ‘너도 위선자지? 너도 위선자야! 나만 중립적이고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것이예요. 20대 남성들이 이준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진흙탕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남은 존재 - 심지어 하버드 나온 - 사람들을 논리로 쳐바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저는 희망적인 꿈이 하나 있는데요. 페미니스트 포탈 같은 곳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의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왜 우리가 해야할까 라는 마음도 동시에 들면서요.

성평등 공약이 삭제된 현실이지만, 성평등 공약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해보자면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갈등과 논란이라는 ‘접사’에 휘둘리고 있는 정치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휘둘리면 안된다 말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논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할 것 같아요.

오매: 마지막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논란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리예: 이를테면 ‘젠더 갈등’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젠더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반페미니즘의 문제인 것이죠. 백래시의 문제죠. 그걸 논란이라는 말을 붙이면 상대주의적인 것으로 보여요. 찬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보여요. 그것을 우리가 정연한 언어로 비판할 수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런 비판이 안 됩니다. 모두가 모두의 감정적 진실을 가지고, 누구의 감정적 진실이 훌륭하냐를 따지고 니 말이 맞다고 손을 들어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이 이 온라인 공간의 주장을 무조건적 수용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논란이 붙으면 이미 도덕적으로 결함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오매: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00 갈등’ 하면 ‘갈등’ 떼고 ‘반’00라고 붙이라는 도식이죠?

젠더갈등이면 갈등 떼고 반젠더, 전장연갈등이면 반장애인권. ‘젠더갈등 아니다’는 이야기를 토론회 학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젠더갈등이라는 교착을 어떻게 넘어갈까 했는데 리예님이 아이디어와 출구를... 글로 써서 공유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배진경 선생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배진경 : 두 분이 되게 우리 방향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소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야근하지 마세요. 제발요. 야근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최근 주변 분들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벌써 4명이나 듣게 되었어요. 공통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제발 밤에는 주무시고요, 아침에는 밥을 드시고요, 제발 운동 좀 하세요. ‘활동’ 말고 ‘운동’ 좀 하세요.

오매: 야근하지 말라는 배진경님은 평소에도 활동가들의 열악한 활동 조건 감시를 많이 하시는 분이예요. 그런데, 활동하는 입장에서 한편으로 내가 잠을 자면 이준석이 더 발악을 할텐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나요?! (웃음)

배진경 : 그렇죠, 그런데 다음날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새벽에 성명이 나오니까 댓글이 달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성명이 나오고 이러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쓴 성명은 늦은 성명처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웃음)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걱정과 우려에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최근 활동하면서 현타가 심하게 와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일만 하지 마시고 나의 도파민을 찾으십시오. ‘내가 뭘 할 때 기쁜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답 못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 좋아하세요?”

플로어: 배진경 

배진경: 어우. 어쨌든. 이런 나에게 도파민을 주는 뭔가를 좀 찾으세요. 사람이 중화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계속 살다보면 아픕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오래오래 이 세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플로어: 맞습니다~

배진경: 제발 이 세 가지는 하셨으면 합니다. 야근하지 마시고, 활동 말고 운동 하시고, 도파민을 찾으십시오. 오래오래 같이 아프지 말고 일합시다. 결론은! 같이 일하자는 것이예요. 저는 제 동지들을 정말 잃고 싶지 않아요. 건강하게 나의 사랑하는 동지들이 오래 갔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란희 : 예, 알겠습니다. 밤에 성명 쓰지 않고 일찍 퇴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도파민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도파민은 아름답고, 좋아하는 것에서도 나오지만 분노에서도 나온다는 큰 문제가 있어요. 어제 다들 도파민이 뽐뽐 되어서 잠에 못 드신 것 아닙니까?

배진경: 그건 도파민 아니예요, 아드레날린입니다. 긍정적 감정의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오매: 자, 이번 토크 주제는 ‘페미니스트 정치액션’인데요. 소소한 것부터 거시적인 것까지 어떻게 살아야하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20여년의 활동을 함께 하는 동안 저는 란희님이 ‘여성운동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장면을 곁에서 많이 봤었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내구타에 관한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피해자들이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지?하며 고민하셨던 것. 쉽게 알리려고 약사회와 함께 약국봉지에 여성의전화 상담번호 쓰는 활동도 하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란희: 네, 거시적으로는 저도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 조직이 극단적으로 효율성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고 하나를 남겨야한다면 교육은 꼭 남겨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요. 사람들이 공동체에 잘 어우러지게 하고, 남을 존중하는 훈련이 잘 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업무량이 너무 증가돼요. 실제로 우리는 윤석열 정권 때 폭력 발생 수치가 너무나 늘었다는 것을 확인해 왔어요. 그러니 20~30대가 그렇게 이준석과 극우를 지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경악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때 폭력의 가능성을 정말 우려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나라에 교육이라는 장기적 안목을 바라보는 정치인이 없는 것도 너무나 큰 재앙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처럼 유력 정당 후보들이 뒤늦게라도 공약을 내도록 하려면 강력한 시민층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이 의제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삶에서 다른 기회를 만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단체들이 숫자도 많아지고, 튼튼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라인 공간 너무 문제죠. 오죽하면 인터넷을 못쓰는 형벌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징역 3년 이런 것처럼요. 농담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인터넷에 개입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AI 발달도 젠더 관점에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많지요. 온라인 공간을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입니다.

여하튼, 요지는 6월 3일이 지나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요, 6월 2일에 사무실 대청소하기로 했어요. 새청소를 하고, 새인생을 살아보기로 했어요. 6월 25일부터 이수역 아트나인에서 여성인권영화제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많은 일을 하면서 미래를 도모해보겠습니다.

오매: 여성노동자회도 상담운동하다가 2024년 고용노동부 상담 예산을 없애면서 고민하고 계시고, 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성폭은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여성운동 단체인데요 - 이런 정부 주도 제도가 언제까지 건강할까? 고민도 되거든요. 활동들 와중에 ‘교육을 남기겠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고민하고 있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중에 ‘엄마 페미야?’ ‘이모 페미야?’ 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린이가 나에게 페미인지 물어보면 바로 다음 날 데려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차별금지 공놀이도 하고. 합정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안되면 여성노동자회에 방문하고, 불광의 한국여성의전화에도 가고요. 어때요? (좋아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제 권영국 후보가 이야기하다가 못한 아쉬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교육 공간에서 정치적 의사표명의 자유를 교육자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사가 역량이 많은데 시민교육 현장에서 ‘정치금지’가 장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문제도 함께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로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플로어1 : 어제 토론회 생방송으로 봤어요. 질문을 받았을 때 권영국 후보가 잘 대답을 못했잖아요.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할 수 있는 여성후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뮤니티에서 혐오를 하는 남성들은 정치적 집단이 되었고, 그들을 이준석이 대표하고 있는데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현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운동을 선배들이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 성과들이 우리 사회에 여러 법안으로 있는데. 지난 총선으로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내쫓긴 폐허에서 우리가 다시 ‘여성 정치 세력화’를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친구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주당은 사실상 보수고, 국힘은 극우인 상황에서 한국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진보 정당의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해 우리가 정치적으로 집단 입당같은 것을 해야하는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어제 오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진보 정당 안에서 유의미한 세력을 만드는 게 필요한 시점 아닌가. 저도 정의당에 있었는데, 진보 정당 안에서 ‘젊은 여성 활동가’가 어떤 표상밖에 되지 못하는지를 겪고 탈당했거든요. 개인 나름의 비판적인 평가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고, 다시 진보 정당으로 돌아가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유의미하게 만들어야 하는 때가 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플로어 2 : 저는 다시 진보정당에 집단입당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게 진보정당이든 뭐든 우리 여성들이 좀 더 나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겸손해요. 저는 비상행동 상황실에 파견을 갔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 강력하게 들었어요. 겨울 내내 무대에 중년 남성들만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성 대표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물으면 제안을 해도 여성분들이 거절한다는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여성에게 제안을 했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내가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요. 거기다 지난 주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모든 정치인들이 성평등 정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행동이 반드시 이것을 주요요구안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부문의 요구를 넣으면 나머지 모든 부문이 자기 거 넣으려고 한다’면서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성평등 정책이 부문이냐. 온갖 논쟁 끝에 넣기로 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너무 빠이 쳤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후보들한테만 빠이 치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운동진영에도 빠이 치는 것이지요.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완주하길 바랐는데 등록 하루 전 사퇴한 것 너무 너무 배신감을 느꼈어요. 진보당은 후보, 자금력, 조직력, 정책 다 있었는데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한거잖아요. 지금 남성들만의 여러 정치를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20년 전에 진보정당은 최소 30% 여성 출마 등 대표성을 보장해야 했는데, 지금은 퇴보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제 토론회를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다가 봤어요. 지금도 너무나 불쾌하고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이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정당 운동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운동이 더 계급적이고 체제전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낸시 프레이저가

자본주의 체제가 돌봄을 개인의 영역으로 돌리면서 이득을 얻고 있다고 했던 말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체제전환운동이 페미니즘과 만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성들의 문제도 남성들 사이의 계급 갈등을 성차별 문제로 치환하면서 정작 중요한 부분을 보지 못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들만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체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같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육을 많이 해도 밖에 나와서 자신이 서있는 땅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플로어 3 : 저는 액션 중 중요한 게 하나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향력이 너무 한 줄이 되기는 했지만 언론에 대한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준석의 삽질을 보고 그 순간에는 너무 분노했지만 사실 아침에는 차라리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는 다음 선거에서 더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 걱정은 5년 뒤의 대선이었거든요. 그때 이준석을 격파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었는데 스스로 똥볼을 차주니 고맙다고 생각했었고. 이준석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고민이 너무 필요해요. 속칭 ‘진보 언론사’에서 1면에 유력 3파전을 쓰는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다는 점이에요. 진보언론이 언제부터 지지율 순으로 기계적으로 쓰기 시작했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민주당의 멘털리티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엘리트 권력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진보언론 역시 자유롭지 않다고 봐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권력을 다투아가고 쟁취하는 것이지 "진보"세력으로서 가치관과 신념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죠. 진보언론의 결정권자 주변에는 비슷한 멘털리티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문제적인 기사를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선은 각 후보의 공약도 중요하고 상징적이지만, 사실 무조건 인지도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진보 언론이라는 곳에서도 아마도 지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양당 구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최근 몇 년 간 총선, 지선, 대선을 보면서 양당 구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진보 언론사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연차 높은 기자들은 검찰만 깨지면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만은 안 되지요. 이 분들이 광장에 안 나와봤다는 게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마치 민주당 류가 한 순간의 권력만 잡으면 모든 문제들을 한번에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언론사 외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망설이지 마시고, 기자들이 왜 이메일을 공개하겠습니까. 이메일로 써주셔야 해요. 왜 그런 문제의식 없이 썼냐, 진보 언론들이 이재명이 발표한 공약을 어떤 관점으로 썼는지 봤는데 전혀 비판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기자에게 항의 메일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보 언론이지 않냐, 진보적인 가치관을 왜 못 쓰냐. 진보 관점에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요. 우리 다 중요하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플로우 4 : 노동이랑 여성 의제에 대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작년 여성파업을 하면서 노조 현장에 많이 갔거든요. 구조적 성차별 등에 대해 남성, 여성 조합원들에게 이야기 하는데요.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 내에서도 그렇고 노동 현장, 특히 민주노총이 지회에 맡겨버리는데 우리는 실제 그 현장에 직접 가서 해요. 그럴 때 변화가 많이 보여요. 사실은 자기가 그냥 임금이 더 많은 게 아니라는 걸 느끼시죠. 포괄적 성교육을 일반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을 생각하지만 민주노총에서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여성학교, 페미니즘 학교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광장 사업을 많이 하면서 2030 여성, 퀴어를 많이 만나는데요. 주로 온라인을 통해 페미니즘을 만난 세대이잖아요.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느꼈어요. 노동권에 대해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서도요. 저는 하반기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도 요구하고, 기업에도 요구하고, 안 된다면 우리도 많이 하자. 그래서 대세가 되자. 제안해봅니다.

오매 : 여러분 아시겠죠? 내일부터 하루에 한 명의 기자에게 메일을 쓰고, 하루에 한 명씩 교육하고, 진보정당도 다같이 집단적으로 가입하자고 제안서가 오면 적극 응답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보아야겠습니다.

<페미가 페미에게, 이번 선거 어떻게 해?!> 집담회 시간을 가져봤고요. 너무 답답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모여서 얘기해야 일이 되잖아요. 이제 나가며, 찍을 후보 안 정해졌던 50%의 분들, 이제 마음이 좀 정해지셨나요? 이 질문으로 좁혀진다는 것은 좀 아쉽지요? 이것 이상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니까요. 모두 반가웠습니다.

내일이 사전투표인데... 영향력을 미치고 싶잖아요? 그쵸? 오늘 나온 이야기를 속기록 형태로 외부에 내보내서 영향력을 미쳐볼까 하고 있습니다.

배진경: 오늘 릴리즈 한다고요? 그러면 또 야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오매: 아~ 야근을 걱정하는 페미니스트! 여러분, 페미니즘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제 다 같이 앉아서 이준석 사퇴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들, 이준석은 사퇴하라!



(사진: 다같이 이준석 사퇴를 외친다)